

金春秋의 渡日路程과 外交

徐榮教*

| 목 차 |

- I. 머리말
- II. 倭國의 新政權 등장과 金春秋의 渡日
- III. 新羅 王京에서 對馬島에 이르는 路程
- IV. 對馬島에서 難波에 이르는 路程
- V. 改新政權과의 外交
- VI. 맺음말

| 국문초록 |

645년 倭國에서 乙巳의 變이 일어났다. 中大兄皇子가 蘇我氏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다. 646년 倭國의 사신이 신라에 왔다. 그해 10월 경 金春秋는 그들과 倭國으로 향했다. 王京을 떠난 金春秋 일행은 울산단층을 따라 毛火까지 내려가다가 동래단층으로 들어섰다. 울산(屈井縣)을 지나 동래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온천을 했다. 그리고 부산항으로 갔다. 對馬島行 배가 정박하고 있었다.

순풍을 기다리던 金春秋는 왕실목장인 絶影島 太宗臺에서 활을 쏘았다. 바람이 불자 그는 승선하여 對馬島 북단으로 향했다. 도착 후 섬 남쪽으로 가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壹岐島행 배를 탔다. 그곳 도착 후 항해는 순조로웠다. 쿠루시오 해류에 밀려 筑紫에 도착했고, 다시 승선하여 關門해협을 빠져나가 瀬戶內海로 접어들어 오사카(難波)로 향했다.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 syk367@naver.com

수많은 섬들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고, 양쪽으로 땅이 보인다. 難波에 이른 金春秋는 中大兄과 협상을 했다. 앞서 蘇我氏 정권은 신라를 괴롭혀 왔다. 591-595년 倭國은 九州에 2만의 병력을 집중시켜 신라를 견제했고, 신라의 병력이 남쪽해안에 묶이자 고구려의 溫達이 충북 단양까지 南下하여 阿朮城을 공격하였다. 601년 蘇我氏는 羅濟에게 신라挾擊을 제안했다. 602년 倭軍 2만 5천이 九州에 주둔하여 신라를 공격할 태세를 갖춘 가운데 백제가 4만을 남원 운봉고원(팔랑치)으로 진군시켰다. 하지만 왜군 내부에 문제가 생겨 신라로의 출병이 연기되었다. 신라가 그 틈을 이용하여 지리산 아막성에 병력을 집중시켜 백제군 4만을 전멸시켰다. 603년 8월에 가서야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九州의 왜군이 철수한 상태라 진평왕이 직접 1만을 이끌고 가서 이를 구원했다.

이후에도 羅濟는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20년의 장기전을 펼쳤다. 623년 백제가 倭國에 신라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해 蘇我馬子の 동생 蘇我境部臣이 신라를 공격했다. 직후 신라의 전력이 남해안에 묶였다. 624년 백제군이 운봉고개를 돌파하여 함양으로 들어왔고, 이후 산청·진주·함안·의령을 차례로 점령했다. 642년 백제는 大耶城 등 30성을 함락시키고, 낙동강 서쪽을 차지했다.

646년 金春秋가 倭國을 방문할 당시에도 백제와 전쟁을 하고 있었다. 倭國이 麗濟의 편에 선다면 신라의 미래가 없었다. 金春秋는 新政權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했다. 이후 倭國은 660년 이전까지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핵심어: 金春秋, 中大兄, 中臣鎌足, 東萊溫川, 太宗臺, 對馬島

I . 머리말

부산 영도의 太宗臺 암석해안은 우리나라의 명승지이다. 울창한 숲, 굽이치는 창과가 절경을 이룬다. 『東萊府誌』 古蹟 조를 보면 金春秋가 이곳을 다녀가 太宗臺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있다.¹⁾

1) 『東萊府誌』 古蹟(국립중앙도서관pdf 43쪽) “太宗臺 在府南三十里 絶影島東 新羅太宗來遊射帳之處.”

『東萊府誌』는 1740년 동래부사 朴師昌이 저술한 것이다. 그는 前동래부사 李瑞雨가 편찬한 『莒山後誌』와 『東萊勝覽書後誌』 두 책을 참고하고, 邑人들을 찾아다녀 얻은 지식을 토대로 『東萊府誌』를 편찬했다. 太宗臺 作名 이야기는 현지인들의 傳言에 의거한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18세기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1,100년의 시간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金春秋가 부산의 또 다른 장소(동래은천)에 나타난 기록이 있다.

부산은 倭國의 관문인 對馬島와 가장 인접한 곳이다. 두 지역 사이의 항로는 선사시대부터 존재했고, 對馬島 對岸의 중요한 지표인 영도(태종대)가 신라왕실의 소유였다.²⁾ 남해↔동해 연안 항해 船舶뿐만 아니라 對馬島에서 신라로 오는 배들도 太宗臺에서 관측된다.³⁾

펼치는 金春秋의 부산 출현과 관련하여 646년 그의 倭國방문에 주목하고 싶다. 渡日時 그가 어떠한 노정을 따라갔는지 구체적으로 복원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日本書紀』와 『三國遺事』 그리고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들을 참고했다. 특히 조선시대 통신사들이 남긴 상세한 기록들은 고대 문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먼저 본문 2장에서 金春秋의 渡日 동기에 주목했다. 3장과 4장에서

2) 『三國史記』 卷43, 金庾信傳 下를 보면 신라 聖德王이 金庾信의 손자 允中에게 絶影島에 생산된 馬를 하사했다. 이 기록은 영도가 신라왕실 목장임을 암시하고 있다. 서영교,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목장』, 『港都釜山』 33, 2017.

3) 초기부터 신라는 倭寇의 습격에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三國史記』 卷3, 실성이사금 7년(408) 조를 보면 對馬島가 倭寇의 본거지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續日本後紀』 卷13, 承和 10年(843) 8月 戊寅 조를 보면 “大宰府言. 對馬嶋上縣郡竹敷埭防人等申云. 從去正月中旬. 迄于今月六日. 當新羅國. 遙有鼓聲. 傾耳聽之. 每日三響. 常俟巳時. 其聲發動. 加以至于黃昏. 火更見矣.”라고 하고 있다. 843년 對馬島 북쪽 해안의 防人 등이 大宰府에 보고하기를 ... 해질 무렵 황혼이 찾아들면 신라 쪽에서 불빛이 보인다고 했다. 그것은 부산 영도의 烽火臺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곳은 남해안이 동해안으로 꺾이는 지점이고, 對馬島 최북단 鱒浦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불빛은 남해안 연안에서 동해안으로 접어들거나 그 반대로 향하는 배들을 인도하는 燈臺 역할을 했을 것이다. 현재에도 태종대의 영도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다.

신라 王京을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難波에 이르는 노정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복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倭國에 도착한 金春秋의 외교가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Ⅱ. 倭國의 新政權 등장과 金春秋의 渡日

645년 고구려와 唐의 大戰爭이 일어난 그해 倭國에서 乙巳의 變이 터졌다. 中大兄皇子(훗날 天智天皇)가 蘇我入鹿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다. 蘇我氏는 587년부터 645년까지 대를 이어 倭國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집안이다.⁴⁾

당시 동아시아는 쿠데타의 시대였다. 『日本書紀』기록을 보면 皇極天皇 元年(642년) 正月에 백제 國主母가 죽자 의자왕이 동생의 아들 翹岐와 그의 여자 형제 4명, 內佐平인 岐味 등 신분이 높은 인물 40명을 섬으로 추방했다고 한다. 또한 고구려의 淵蓋蘇文이 王과 大臣 15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고 한다.

백제 의자왕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신하들을 숙청하고 권력을 강화했고, 고구려의 신하인 淵蓋蘇文이 王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집권했다.⁵⁾ 한반도에서 연이은 정변은 倭國의 王家와 蘇我氏 모두

4) 門脇禎二, 「蘇我氏の出自について」,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2号, 1971: 『大化改新史論』 思文閣出版, 1991. 鈴木靖民, 「木滿致と蘇我氏」,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51号, 1981. 山尾幸久, 『日本國家の形成』 岩波新書, 1977. 加藤謙吉, 「蘇我氏と大和王權」 吉川弘文館, 1983. 坂本義種, 「木滿致と木(弐)滿致と蘇我滿智」 『韓』 116号, 1989. 水谷千秋, 「蘇我氏-中央における熾烈な權力争いに挑み續けた一族」, 『歴史讀本』 2011年 8月号. 水谷千秋, 『謎の豪族 蘇我氏』 文藝春秋(文春新書), 2006. 遠山美都男, 『蘇我氏四代臣、罪を知らず』 ミネルヴァ書房(ミネルヴァ日本評伝選), 2006.

5) 『日本書紀』 卷24 皇極天皇 元年(642) 2月 戊子 《二》 “遣阿曇山背連比良夫。草壁吉士磐金。倭漢書直縣遣百濟弔使所。問彼消息。弔使報言。百濟國主謂臣言。塞上恒作惡之。請付還使。天朝不許。百濟弔使人等言。去年十一月。大佐平智積卒。

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蘇我暹夷는 倭國으로 망명한 백제왕자 翹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6) 백제의 정변소식을 소상히 들었다. 백제왕의 신하 숙청사건은 蘇我暹夷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고구려의 신하가 왕을 피살하고 권력을 잡은 사건은 皇極天皇과 그 아들 中大兄에게 苦海를 안겼다. 왕실과 蘇我氏는 자신들도 각각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642년 蘇我暹夷는 자신의 선조의 사당을 葛城高宮에 짓고 64(8×8)명의 무희를 시켜 八佾舞를 추게 했다. 그리고 180部曲의 사람들을 징발하여 자신과 그의 아들이 들어갈 雙墓를 수축하게 했다. 聖德太子 가문인 上宮 휘하의 乳部 백성들이 여기에 사역되었다. 上宮의 大娘姬王이 분개하였다. “蘇我臣이 國政을 전단하고 無禮함을 많이 행하였다. 하늘에 2개의 해는 없는 것과 같이 나라에 2왕은 없다. 무엇 때문에 백성들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는가.” 7)

上宮王家가 蘇我씨에게 공개적인 비난을 했다. 大娘姬王은 聖德太子的 딸로 山背大兄의 異腹동생이면서 妻이기도 한 春米女王이라는 설이

又百濟使人擲崑崙使於海裏。今年正月。國主母薨。又弟王子兒翹岐。及其母妹子四人。內佐平歧味。有高名之人冊餘被放於鳴。”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元年(642) 2月 丁未《廿一》 “遣諸大夫於難波郡。檢高麗國所貢金銀等并其獻物。使人貢獻既訖而諮云。去年六月。弟王子薨。秋九月。大臣伊梨柯須彌殺大王。并殺伊梨渠世斯等百八十餘人。仍以弟王子兒爲王。以己同姓都須流。金流。爲大臣。”

6)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元年(642) 4月 乙未《十》 “蘇我大臣於畝傍家喚百濟翹岐等。親對語話。…”

7)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元年(642) 12月 是歲 “蘇我大臣蝦夷立己祖廟於葛城高宮。而爲八佾之舞。遂作歌曰。野麻騰能。飮斯能毘稜栖鳴。倭施羅務騰。阿庸比施豆炬梨。舉始豆炬羅符母。又盡發舉國之民并百八十部曲。預造雙墓於今來。一曰大陵。爲大臣墓。一曰小陵。爲入鹿臣墓。望死之後勿使勞人。更悉聚上宮乳部之民。〈乳部。此云美父。〉役使塋所。於是上宮大娘姬王發憤而歎曰。蘇我臣專擅國政。多行無禮。天無二日。國無二王。何由任意悉役封民。自茲結恨。遂取俱亡。☆是年也太歲壬寅。” 연민수외,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144쪽,註 102 참조

있다. 643년 10월 아버지에게 大臣의 자리를 물려받은 蘇我入鹿은⁸⁾ 上宮王家, 聖德太子 자식을 제거하고 古人大兄을 天皇으로 옹립하고자 했다.⁹⁾ 643년 11월 그는 차기 왕위계승 후보자의 하나인 山背大兄王의 邸宅을 습격하였다.

그러자 山背의 종자들이 나와 蘇我씨의 군대와 싸웠다. 초전에 화살 공격을 받은 蘇我씨의 군대가 잠시 물러났다. 그 틈에 山背大兄이 가족들을 데리고 산에 숨었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山背大兄은 斑鳩寺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살했다. 蘇我入鹿이 上宮王家를 멸망시켰다.¹⁰⁾

鎌田元一은 이렇게 언급했다. “당의 동방정책과 한반도의 정세를 직면한 蘇我入鹿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강화를 지향했고, 入鹿 나름의 해결책이 上宮王家 멸망사건이었다. 여왕 밑에 왕위 계승 후보자가 鼎立해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재빨리 해소하고 자기 주도의 권력 집중을 도모한 것이었다.”¹¹⁾

8)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2年(643) 10月 壬子(6일). “蘇我大臣蝦、緣病不朝。私授紫冠於子入鹿。擬大臣位”

9)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2年(643) 10月 戊午(12일)“蘇我臣入鹿獨謀將廢上宮王等而立古人大兄爲天皇>”

聖德太子的 妻子: 처1 橘大郎女(尾張皇子娘. 菟道貝蛸皇女姪) 所生 白髮部王 手島女王

처2 刀自古郎女(蘇我馬子娘) 所生 山背大兄王 財王 日置王 片岡女王

처3 膳大郎女(膳臣傾子娘) 所生 泊瀨王(妻는 佐富女王) 三枝王 伊止志古王 麻呂古王

春米女王(山背大兄王妃) 久波太女王 波止利女王 馬屋古女王

10)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2年(643) 11月 丙子朔 “蘇我臣入鹿遣小德巨勢德太臣。大仁土師娑婆連。掩山背大兄王等於斑鳩。 <或本云。以巨勢德太臣。倭馬飼首爲將軍。> 於是。奴三成與數十舍人出而拒戰。土師娑婆連中箭而死。軍衆恐退。軍中之人相謂之曰。一人當千謂三成歟。山背大兄仍取馬骨投置內寢。遂率其妃并子弟等。得間逃出。隱膽駒山。三輪文屋君。舍人田目連及其女菟田諸石。伊勢阿部堅經從焉。巨勢德太臣等燒斑鳩宮。灰中見骨。誤謂王死。解圍退去。』由是山背大兄王等。四五日間淹留於山。不得喫飲。…於是山背大兄王等自山還入斑鳩寺。軍將等即以兵圍寺。於是山背大兄王使三輪文屋君謂軍將等曰。吾起兵伐入鹿者。其勝定之。然由一身之故不欲傷殘百姓。是以吾之一身賜於入鹿。終與子弟妃妾一時自經俱死也。”

蘇我入鹿의 잔악함에 사람들은 경악하였고,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자 蘇我入鹿은 飛鳥 板蓋宮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甘檮岡에 요새화 된 저택을 지었다.¹²⁾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의 遼東城과 白巖城을 함락시킨 직후인 6월 8일 中大兄皇子와 中臣鎌足은 蘇我入鹿 암살을 謀議하였다.¹³⁾ 장소는 大極殿 어전 회의장이었다. 그곳에서 천황이 三國의 사신들을 만날 터였다.

12일 蘇我入鹿이 입궐하자 中大兄은 12개의 문을 모두 폐쇄했다. 자객 2명이 튀어나와 蘇我入鹿의 다리를 베었다. 皇極天皇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심한 부상을 당한 蘇我入鹿이 기어가 천황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中大兄이 대답했다. “蘇我入鹿(안작)이 天宗(천황의 가문)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자 천황이 내전으로 들어가 버렸고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¹⁴⁾

분노한 아버지 蘇我蝦夷는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蘇我氏에게 등을 돌렸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그는 다음 날 집에 불을 지르고 아들 시신 앞에서 자살했다.¹⁵⁾

11) 이재석 『7세기 동아시아 정세에서 본 上宮王家 멸망사건』, 『歷史學報』 228, 2015, 291~316쪽에서 재인용. 이재석은 앞의 글에서 上宮王家가 親신라적이라고 보고 논리를 전개했다.

12)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3年(644) 11月 “蘇我大臣蝦夷·兒入鹿臣雙起家於甘檮岡。稱大臣家曰宮門。入鹿家曰谷宮門。〈谷。此云波佐麻。〉稱男女曰王子。家外作城柵。門傍作兵庫。每門置盛水舟一。木鈎數十以備火災。恒使力人持兵守家。大臣使長直於大丹穗山造椗削寺。更起家於畝傍山東。穿池爲城。起庫儲箭。恒將五十兵士續身出入。名健人曰東方儻從者。氏氏人等入侍其門。名曰祖子孺者。漢直等全侍二門。”

13)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4年(645) 6月 甲辰《八》 “中大兄密謂倉山田麻呂臣曰。三韓進調之日。必將使卿讀唱其表。遂陳欲斬入鹿之謀。麻呂臣奉許焉。”

14)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4年(645) 6月 戊申《十二》

15) 『日本書紀』에서는 주살 당했다고 하나, 『藤氏家傳』에서는 자살했다고 하고 있다. 연민수외,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162쪽, 註238.

蘇我씨 本宗家 멸망한 후 中大兄皇子는 삼촌을 孝德天皇(재위 645-654)으로 즉위시켰다. 자신은 太子가 되어 內大臣 中臣鎌足과 함께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면서도 천황중심으로 정치를 개혁하는 大化改新이 단행했다. 646년 1월 孝德天皇이 ‘개혁의 칙령’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王族과 豪族의 토지와 인민의 사유화를 폐지하고, 모두 國有로 전환한다.

둘째, 지방행정 조직을 확립하고 국방·교통 제도를 정비한다.

셋째, 호적을 작성해 중국의 均田制와 같은 班田收受法을 실시한다.

넷째, 기존 부역을 폐지하고 새로운 전·호별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大化改新은 唐律令을 도입하여 중앙집권적 정치기구를 구축하여, 토지와 인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고자 했다. 한 달 후인 646년 2월 三國의 사신이 倭國에 도착했다.

“高(句)麗·百濟·任那·新羅가 함께 사신을 보내어 調賦를 바쳤다.¹⁶⁾”

사신들은 蘇我氏 정권이 붕괴되고 新政權이 들어선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麗濟의 양면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신라의 사신이 倭國에 어퍼한 제안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8개월 후 倭國이 답변을 했다.

(646년 9월 倭國이) 小德 高向博士黑麻呂를 파견하여 新羅에게 質을 바치게 하라고 했다.¹⁷⁾

倭國사신 高向黑麻呂이 와서 신라의 비중 있는 인물을 자국에 보내

16) 『日本書紀』卷25, 大化2年(646)2月 조 “高麗·百濟·任那·新羅並遣使貢獻調賦.”

17) 『日本書紀』卷25, 大化2年(646)9月 조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

주기를 원했다. 신라는 善德女王的 조카 金春秋를 파견하기로 했다.¹⁸⁾

金春秋 개인의 의지도 있었던 것 같다. 그가 국왕을 중심으로 일신을 시도하는 倭國의 정치개혁에 관심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권력 집중은 대세였다. 626년 玄武門의 變을 일으킨 唐太宗이 즉위하여 突厥을 제압하고(630년) 세계최강국이 되면서 政變이 麗·濟·倭로 번져갔다.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었고, 정책이 전략적인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신라만이 진골귀족들의 힘이 강해 합의에 시간이 걸리고, 상황·사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졌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다. 642년 백제가 합천 大耶城을 함락시켰고, 여기서 金春秋는 딸과 손주를 잃었다. 백제 監獄 바닥에 매장된 혈육을 생각하면서 그는 한을 품었다. 같은 해 고구려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 청병을 위해 고구려로 향했다. 하지만 淵蓋蘇文에 의해 감금되었고, 얼마 후 金庾信의 노력으로 풀려났다.

646년 말 金春秋는 倭國을 향해 출발했다.¹⁹⁾ 물론 수행원들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인다. 649년 金多遂의 渡日기록을 보자.

新羅王(眞德女王)이 沙喙部 沙滄 金多遂를 倭國에 파견하였는데 37명이 따라 왔다. 승려 1명, 侍郎 2명, 丞 1명, 達官郎 1명, 中客 5명, 才伎 10명, 譯語(통역) 1명, 僉人(시중드는 하인) 16명이었다.²⁰⁾

沙滄인 金多遂의 수행원은 37명이다. 그렇다면 大阿滄인 金春秋의 수행원은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18) 주보돈, 『金春秋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94-95쪽.

19)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東京, 1989, 392쪽.

20) 『日本書紀』卷25, 大化5년(649) 是歲 丙 “新羅王遣沙喙部沙滄金多遂爲質。從者卅七人。〈僧一人。侍郎二人。丞一人。達官郎一人。中客五人。才伎十人。譯語一人。僉人十六人。并卅七人也。〉

Ⅲ. 新羅 王京에서 對馬島에 이르는 路程

金春秋의 渡日 路程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기록이 있다. 453년 신라 弔問使節의 渡日이다.

天皇이 崩했다. 時年이 若干이었다. 新羅王이 天皇이 이미 崩했다 는 말을 듣고 놀라고 슬피하여 調船 80艘과 여러 종류의 樂人 80명을 보내왔다. 對馬에 배를 대고 大哭하고 筑紫에서도 역시 大哭하였다. 배가 難波津에 단자 모두 素服을 입었다. 조공물을 들고 또 여러 가지 樂器를 연주하며, 難波에서 京에 이르렀다. 혹은 울기도 하고 혹은 춤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는데 마침 屍身을 모셔둔 殯宮에 참여 하였다.²¹⁾

앞서 병든 允恭天皇이 신라에 의사를 청했고, 치료를 받아 낳았다고 한다.²²⁾ 그가 죽자 신라가 대규모 弔問使를 보냈다. 조공을 하는 배(船) 80척과 여러 종류의 樂人 80명을 보냈다고 한다. 對馬島에 상륙한 그들은 크게 哭을 했다. 그리고 筑紫(후쿠오카)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크게 哭을 했다.

신라 사절을 태운 배가 筑紫를 떠나 難波津(오사카)을 향했고, 도착 하자 모두 素服을 입었다. 신라 弔使행렬은 難波津을 출발하여 奈良로 향했다. 도로에서 哭을 하기도 하고 樂師의 연주에 따라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奈良에 도착한 신라사절단은 殯宮에 참배했다. 그 노정은 다음과 같다. 신라 王京→신라 모처의 항구→對馬島→筑紫→瀬戶內海→難波津→奈良.

21) 『日本書紀』卷13, 允恭天皇 42年(453) 正月 戊子(14일)

22) 『日本書紀』卷13, 允恭天皇 3年(414) 正月 辛酉朔 “遣使求良醫於新羅.” “秋八月。醫至自新羅。則令治天皇病。未經幾時。病已差也。天皇歡之。厚賞醫以歸于國.”

金春秋의 渡日路程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對馬島로 가기 위해 부산을 경유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東萊府誌』古蹟 조를 보자.

“太宗臺는 동래부(府) 남쪽 30리에 위치해 있다. 絶影島의 東쪽에 新羅太宗이 와서 유람하며, 활을 쏘면서 머문 장소가 있다(太宗臺在 府南三十里 絶影島東 新羅太宗來遊射候之處.)”²³⁾

金春秋가 太宗臺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 개연성은 어떻게 찾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沈魯崇[1762~1837]이 유배지인 부산지역에서 저술한 일기 『南遷日錄』中(한국사료총서 제55집) 癸亥(1803)년 四月初五日 조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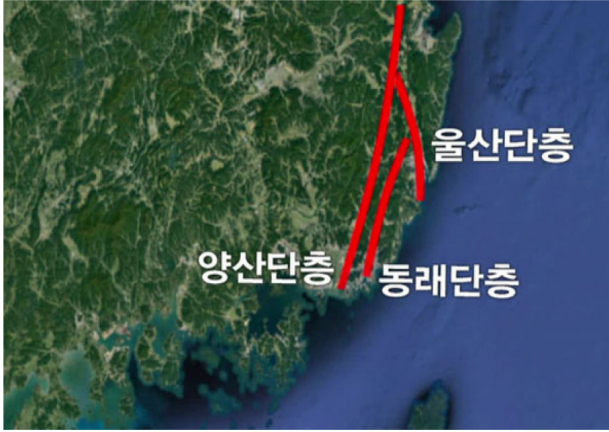
동래현의 東門의 外路 가운데 小墩環 있어 種松이 臺隍狀 같이 보인다. 辛生이 말하기를 이것을 부르기를 太宗臺라고 합니다. 新羅太宗이 東萊湯泉에서 휴식하러 가다, 車駕가 이곳에 멈추어 머물러 臺의 이름이 되었다 합니다. 嗚呼, 可謂異矣. 2천년이 지나 오래되었는데 民이 지금 그렇게 칭하고 있다. 足備縣의 古蹟이다.²⁴⁾

위의 기록은 『동래부지』와 마찬가지로 구전되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문자화되었을 것이다. 신라 태종인 金春秋가 왕경인 경주에서 동래 湯泉으로 가다가 동래縣 東門 부근에서 휴식을 했다고 전한다. 이는 경주에서 동래에 이르는 자연 교통로를 고려할 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두 지역 사이의 斷層이 존재하고 도로가 있다. 언제나 길

23) 『東萊府誌』古蹟(국립중앙도서관pdf 43쪽)

24) 『南遷日錄』中(한국사료총서 제55집) 癸亥年 四月初五日 조 “縣之東門外路中, 見有小墩環, 種松若臺隍狀. 辛生曰, 此號太宗臺, 新羅太宗就休東萊湯泉, 車駕止此休憩, 臺遂名. 嗚呼, 可謂異矣. 二千年之久, 而民到今稱之, 足備縣之古蹟也.”

은 단층을 따라 생겨났다.



<그림 1> 경주에서 부산에 이르는 울산·동래 단층

金春秋가 王京인 경주를 출발하여 東萊에 이른 코스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王京(경주)에서 울산단층을 타고 현 불국사역을 거쳐 외동까지 갔다가, 毛火에서 동래단층으로 들어가 현 범서IC을 지나 태화강을 건너면 울산 삼호동에 이른다. 여기서 울산 청량읍 율리(屈井縣)→웅촌→웅상→노포를 거쳐 동래에 이른다. 金春秋는 이렇게 울산단층과 동래단층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동래온천에서 휴식을 했고, 倭國으로 가기 위해 부산항 영도에 들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⁵⁾

김해를 포함한 부산 지역은 對馬島로 가는 가장 가깝고 안전한 항구이다. 『三國志』 卷30, 魏志 倭人傳을 보면 다음과 같다.

25) 『三國遺事』 卷3, 塔像 靈鷲寺 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신문왕대 宰相 忠元은 동래에서 온천을 하고 王京으로 가던 중 屈井縣官(울산 청량읍:靈鷲寺)에 들렀다고 한다. 『日本書紀』를 보면 676년 왜국을 방문한 忠元은 新羅王子로 나온다. 왕경에서 동래온천에 이르는 노정과 신라왕실의 동래溫井 정비에 대한 글을 준비 중이다.

왜인(倭人)은 대방(帶方) 동남(東南) 대해(大海) 가운데에 산도(山島)에 의지해 국읍(國邑)을 이루며, 옛날 백여국(百餘國)이 한(漢)나라 때 조견(朝見)하는 자(者)가 있었고 지금 통역(通譯)을 시켜 삼십국(三十國)이 군(郡)을 따라 이른다. 왜(倭)는 해안(海岸)을 순(循-돌)하한다. 수행(水行-바닷길)으로 한국(韓國)을 역(歷-지남)하여 작남작동(乍南乍東-남동으로) 그 북안(北岸-북쪽 해안)에 도(到-이르)름 하는데 구야한국(狗邪韓國)의 칠천여리(七千餘里)이다. 처음 한 번 바다로 천여리(千餘里) 대마국(對馬國)에 이른다. 그 대관(大官)을 비구부(卑狗副)라 하고 비노모리(卑奴母離)라고 한다. 절도(絶島-절해 고도)에 있는 것이 방(方) 사백(四百) 여리(餘里) 정도다. 26)



<그림 2> 對馬島와 韓日양쪽 對岸27)

- 26) 『三國志』 卷30, 魏志 倭傳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 其大官曰卑狗, 副曰卑奴母離, 所居絶島, 方可四百餘里…”
- 27) 森平雅彦, 「近世朝鮮通信使船の對馬海峽航路」 『史淵』 155, 九州大學人文科學研究院, 2018, 11~12쪽 圖1.

대방(帶方)군을 출발한 배는 馬韓지역을 왼편으로 바라보면서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현 珍島 부근에서 동쪽으로 꺾어 남해안을 따라 간다. 계속 가면 狗邪韓國(김해)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서 배로 對馬國에 이른다. 이어지는 기록에 對馬島 사람들의 생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좋은 농토가 없고, 해산물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배를 타고 남북으로 돌아다니며 교역하고 있다.”²⁸⁾

농토가 적어 배를 타고 남북 시장으로 돌아다니며 교역하는(乘船南北市糶) 3세기 對馬島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남쪽의 九州지역과 북쪽의 부산·김해지역의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식량을 구해야했다. 그들에게 현해탄 항해는 생존의 조건이었다.

『삼국유사』에 朴堤上이 신라왕자 末斯欣을 對馬島에서 탈출시킬 때 康句麗라는 船員 이름이 등장한다.²⁹⁾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攝政 5年 春3月 癸卯朔 己酉 조에도 같은 내용이 전한다.

3월 癸卯 초하루 己酉 신라왕이 汚禮斯伐과 毛麻利叱智, 富羅母智 등을 보내어 조공하였는데 전에 불모로 와 있던 微叱許智伐早(末斯欣)을 돌아가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이에 許智伐早를 꺾어 “사신 汚禮斯伐과 毛麻利叱智(박제상) 등이 나에게 ‘우리 왕이 제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에 연루시켜 처자를 모두 증으로 삼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잠시 본토에 돌아가서 그 사정을 알아볼 수 있도

28)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對馬島 조 “始度一海千餘里、至對馬國、其大官曰卑狗、副曰卑奴母離、所居絕壘、方可四百餘里。土地山險、多深林、道路如禽鹿徑。有千餘戶。無良田、食海物自活、乘船南北市糶。”

29) 城田吉六, 『對馬萬葉の旅：鉏海の水門に宿る』, 葦書房, 1985. 서영교, 「新羅 倭國 사이 境界人」, 『港都釜山』 34, 2018.

록 해주십시오.”라고 속이게 하였다. 황태후가 곧 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葛城襲津彦을 딸려 보냈다. 함께 對馬에 도착하여 鉏海의 水門에 머물렀다. 이 때 신라의 사신 毛麻利叱智(박제상) 등이 몰래 배와 水手(벙사공)를 구해 微叱旱岐를 태우고 신라로 도망가게 하였다. 그리고 풀을 묶어 사람 모습을 만들어 微叱許智의 자리에 두고 거짓으로 병든 사람인 체하고 襲津彦에게 “微叱許智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襲津彦이 사람을 시켜 병자를 돌보게 했는데, 속인 것을 알고 신라 사신 세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 속에 집어넣고 불태워 죽였다.³⁰⁾

倭國 왕의 허락을 받은 毛麻利叱智(박제상)은 微叱許智伐旱(未斯欣) 함께 倭國을 출발하여 對馬에 도착했다. 그곳의 鉏海의 水門에 머물었는데 박제상이 비밀리 배와 水手를 구해 신라왕자 未斯欣을 신라로 탈출시켰다고 한다. 鉏海의 水門은 지금 對馬島의 북단 위치한 鰐浦(宛尼浦)가 유력하다.³¹⁾

1617년(丁巳年 광해군 9) 7월 7일 부산(戡蠻浦)³²⁾에서 對馬島로 향했던 조선 사절의 기록(李景稷, 『扶桑錄』)에도 鰐浦가 등장한다.

맑음. (새벽) 닭 울 무렵에 굴왜가 사람을 보내어 알리기를,

“순풍이 불기 시작하니 배 안 사람들을 빨리 밥 먹고 출발하게 해야 합니다.”

30)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攝政5年春3月癸卯朔己酉 尙新羅王遣汗禮斯伐。毛麻利叱智。富羅母智等朝貢。仍有返先質微叱許智伐旱之情。是以誚許智伐旱而給之曰。使者汗禮斯伐。毛麻利叱智等告臣曰。我王以坐臣久不還而悉沒妻子爲孥。冀還本土。知虛實而請焉。皇太后則聽之。因以副葛城襲津彦而遣之。共到對馬宿于鉏海水門。時新羅使者毛麻利叱智等。竊分船及水手。載微叱旱岐令逃於新羅。乃造菟靈置微叱許智之床。詳爲病者。告襲津彦曰。微叱許智忽病之將死。襲津彦使人。令看病者。既知欺而捉新羅使者三人。納檻中以火焚而殺。”

31) 城田吉六, 『對馬萬葉の旅: 鉏海の水門に宿る』葦書房 福岡 1985, 1~73쪽

32) 朴梓著·김성은譯. 『東槎日記』, 보고사, 2017, 53쪽.

하였다. 뱃사람들도 또한 ‘순풍이 장차 일어나겠다.’ 하였다. 해가 떠오를 때에 돛을 올리고 바다로 나갔다. 바닷길이 일전에 동풍이 연달아 불었던 까닭으로 물결이 가라앉지 않았고, 순풍이 비록 일었으나 바람이 매우 약하므로 흔들리고 기울어져 배기는 것이 너무도 더디었다. 태종대(太宗臺)를 지난 후에는 순풍이 그치면서 옆 바람이 생겨 노잡이(櫓役)를 재촉해서 겨우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는데 사람도 힘이 다 빠지고 해도 또한 저물어 갔다.

배 안 사람들이 걱정하며 전진하기도 후퇴(後退)하기도 낭패었는데, 잠깐 지나는 동안에 순풍이 크게 일어나 뱃머리에 물결이 부서지며 나는 듯이 빨리 갔다. 비록 순풍이라 하나 풍세가 극히 사나워 눈산(雪山) 같은 파도가 하늘에 불끈 솟고, 은집(銀窟) 같은 파도가 공중에 가설되는 듯, 올라갈 적에는 하늘에 오르는 것 같고 내려 갈 때에는 땅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배 안 사람들이 엎어지고 자빠져 구토(嘔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때를 당하면 비록 좋은 의원(醫員)이나 신묘한 약이 있더라도 거의 구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판방(板房) 위에서 탄 배를 바라보니 거의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자주하여 사람의 간담(肝膽)을 떨어지게 하였는데, 우리나라(朝鮮人) 키잡이와 배를 부리는 왜인들은 모두 빠르다고 축하하였으니 전일의 풍량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었기에 이것을 축하하는지 알 수 없거니와, 바다를 건너는 길이 어렵다고 하겠다.

신시(申時) 초에 對馬島(對馬島) 악포(鰐浦)에 닿았다. 왜음(倭音)으로는 완니포(宛尼浦)인데 수로(水路)로 4백 80리였다. 포구(浦口)에서 10리 거리 쯤에서 왜인의 배 수십 척이 노를 저어와 맞이하여 닻줄을 끌고 포구로 들어가는데, 바다에서 포구 언덕에 닿기까지는 겨우 2~3리였고, 양쪽 언덕에 인가 20여 호가 있었다. 마도(馬島) 부중(府中)까지는 2백 80여 리라 한다. 부중이란 포구 이름으로서 도주(島主)가 있는 곳이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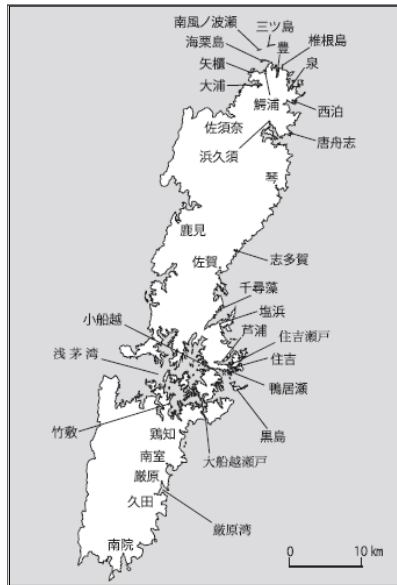
33) 李景稷, 『扶桑錄』 『국역해행총재』 II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고전국역총서 16~17쪽.

1617년 7월 7일 새벽닭이 울 무렵에 왜인 곶왜가 순풍이 불기 시작하니 출발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사절들은 서둘러 승선했고, 동이 터서 수평선이 붉게 물드는 가운데 배가 부산포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바람이 약해 배는 느리게 나아갔다. 太宗臺를 지나면서 순풍마저 거쳤고, 노를 사용하여 억지로 바다 한 가운데 이르렀다. 노잡이들이 힘이 빠졌고, 이윽고 해가 저물어 갔다. 어둠 속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곧 순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파도를 가르며 쏜살같이 나아갔다. 파도가 강해 조선 사절들이 심한 멀미로 구토를 했다. 하지만 조선인 키잡이와 배를 부리는 왜인들은 배가 빠르다고 환호했다. 부산↔對馬島 항로에 조선과 왜 선원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 양국 뱃사람들은 서로 친숙했고, 그 바다에 매우 잘 적응해 있었다.

다음날 對馬島에 복단에 이르렀다. 왜인들의 배 수십 척이 노를 저어와 맞이했다. 그들은 조선배의 닻줄을 끌고 포구로 들어갔다.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鰐浦에 접안하는데 있어 倭人들의 도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對馬島 浦口³⁴⁾

34) 森平雅彦, 『近世朝鮮通信使船の對馬海峡航路』, 『史淵』 155, 2018, 11~12쪽 圖2.

IV. 對馬島에서 難波에 이르는 路程

對馬島에서 難波에 이르는 노정을 살펴보면 있어 먼저 唐使 高表仁의 사례가 참고가 된다. 630년 倭國은 최초의 遣唐使를 보냈고, 632년 高表仁 일행이 倭國에 왔다.

(632년 8월) 大唐이 高表仁을 파견하고 三田耜를 귀국시켰다. 함께 對馬에 정박하였는데 이때 學問僧 靈雲과 僧旻 및 勝鳥養과 新羅 送使 등이 따라왔다.

(632년 10월 4일) 唐國使人 高表仁 등이 難波津에 도착했다.

(633년 正月 26일) 大唐客 高表仁 등이 歸國했다. 送使로 吉士雄摩呂, 黑摩呂등이 對馬까지 갔다가 돌아왔다.³⁵⁾

8월 高表仁 일행은 신라의 송사와 함께 對馬島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신라의 배를 탔던 것이다. 高表仁 일행이 귀국할 때 倭國의 송사가 對馬島까지 배운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당의 사절은 귀국할 때 難波 → 瀬戶內海 → 筑紫 → 對馬島까지 倭國의 배를 이용했고, 對馬島에서 신라 배로 갈아탔던 것으로 여겨진다. 對馬島를 기점으로 신라와 倭國이 향해 구역을 나누어 가졌던 것은 아닐까 한다.

632년 8월에 對馬島에 도착한 高表仁 일행은 10월 4일 難波津에 도착했다. 8월 15일에 對馬島를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筑紫 → 瀬戶內海 → 難波까지 대충 50일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

『冊府元龜』 卷662, 奉使部 조는 高表仁이 倭國에서 목격한 火山을 다

35) 『日本書紀』 卷23, 舒明天皇 4年(632) 8月 “大唐遣高表仁送三田耜。共泊于對馬。是時學問僧靈雲。僧旻。及勝鳥養。新羅送使等從之。”
 『日本書紀』 卷23, 舒明天皇 4年(632) 10月 甲寅(4일) “唐國使人高表仁等到于難波津。”
 『日本書紀』 卷23, 舒明天皇 5年(633) 正月 甲辰《26일》 “大唐客高表仁等歸國。送使吉士雄摩呂。黑摩摩等。到對馬而還之。”

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高表仁을 新州刺史로 삼았다. 貞觀中에 倭國이 朝貢하여 오자 太宗이 그 길이 먼 것을 불쌍히 여겨 歲貢을 면하여 주었다. 또 表仁을 持節로 (倭國에) 보내 어루만지게 했다. 表仁은 바다에서 수개월을 보내고 (倭國에) 이르렀다. 전하기를 가는 길에 地獄之門을 직접 보았다. 그 위에 氣色이 푸른 불꽃의 형상이 있는데 용광로에 달궈진 쇠를 다듬는 아비규환의 소리가 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위급하고 두렵지 않을 수 없다.³⁶⁾

왜국의 화산 폭발 장면을 묘사한 중국 기록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신라 사절들은 倭國을 자주 오고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고, 倭人들에게 그것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중국인 高表仁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옥의 문을 보았다.”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高表仁이 다녀간 14년 후 같은 길을 갔던 金春秋도 이 장면을 목격했을 수도 있다.

한편 위의 기록에서 唐 사절이 對馬島에서 곧장 오사카 難波津으로 직행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壹岐島·筑紫를 들렀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翰苑』卷30에 남아있는 「魏略」의 逸文을 보자.

始度一海千余里 至對馬國 其大官曰卑狗副曰卑奴 無良田南北市
糴 南度海至一支國 置官与對同 地方三百里

3세기 帶方郡을 출발한 중국 사절은 對馬島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남

36) 『冊府元龜』卷662, 奉使部 “高表仁爲新州刺史貞觀中倭國朝貢太宗矜其道遠詔所司無令歲貢. 又遣表仁持節撫之表仁浮海數月方至云: 路經地獄之門親見其上氣色蔥鬱有煙火之狀. 若爐錘號叫之聲行者聞之莫不危懼.”

쪽으로 바다를 건너 一支國에 도착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壹岐島는 현 무암에 둘러싸인 낮고 평평한 대지로, 최고점을 이루는 구상화산(臼狀火山) 다케노쓰지산(岳ノ辻)도 213m에 불과하다.

646년 3월에 신라사절이 귀국할 때 壹岐島 경유 노정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646년) 3月 辛酉(6일) 新羅가 賀騰極使와 弔喪使를 보내왔다. 3月 庚午(15일) 新羅使人들이 과하고 돌아갔다.” “10月 丁酉(15일) 그 날 新羅弔使의 船과. 賀騰極使의 船이 壹岐鳴에 정박하고 있다.”

3月 庚午(15일) 難波 飛鳥에서 출발한 신라 사절은 그해 10월 15일에 壹岐島에 머물고 있었다.³⁷⁾ 646년 귀국하던 신라 弔問使의 노정은 難波 → 瀬戸内海 → 筑紫 → 壹岐島 순으로 파악된다.

金春秋 일행은 對馬島에서 壹岐島를 경유하여 筑紫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착하자 筑紫의 관리가 신라사절의 입국을 難波 조정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음의 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643년 4月 庚子(21일) 筑紫의 大宰에서 말을 달려(馳驛)와 보고 했다. “百濟國主 아들(兒) 翹岐의 동생 王子가 調使와 함께 왔습니다.”³⁸⁾

倭國의 대외 관문인 筑紫에서 奈良 사이에 연변 도로가 가 있고, 말을 갈아 탈 수 있는 驛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643년 6월 13일에도

37) 『日本書紀』卷25, 大化 2年(646) 3月 辛酉(6일) “新羅遣賀騰極使。與弔喪使。”3月 庚午(15일) “新羅使人罷歸。”

『日本書紀』卷25, 大化 2年(646) 10月 丁酉(15일) “是日.新羅弔使船.與賀騰極使船.泊于壹岐鳴.”

38)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2年(643) 4月 庚子(21일) “筑紫大宰馳驛奏曰。百濟國主兒翹岐弟王子共調使來。”

筑紫의 大宰에서 말을 달려(馳驛) 고구려 사신의 도착을 보고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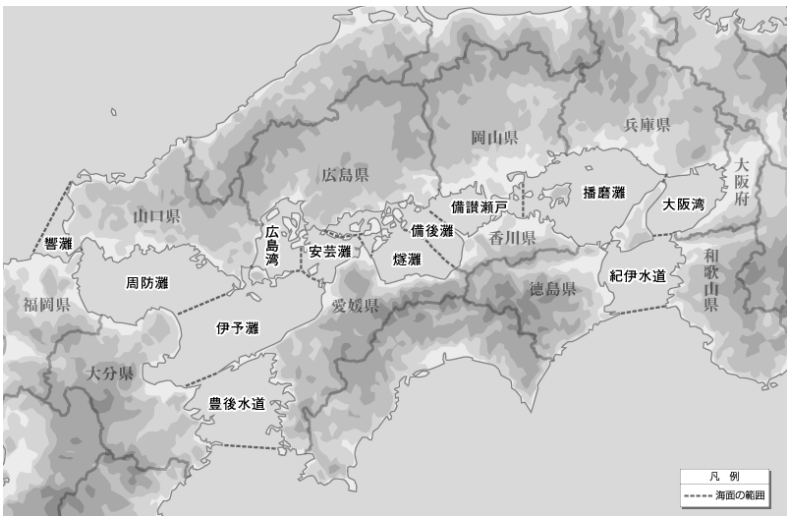
筑紫(후쿠오카)에서 출발한 과발은 長門(아마구치현 西部) → 周防(아마구치현 東南部) → 安芸(히로시마현 西部) → 備後(히로시마현 東部) → 備中(오카야마현 西部) → 備前(오카야마현 東南部) → 美作(오카야마현 東北部) → 播磨(효고현 南西部) → 河內(오사카) → 奈良로 이어지는 山陽道를 이용했을 것이다.

筑紫에서 출발한 배는 關門海峽을 지난다. 關門(關門)이라는 이름은 本州 서쪽의 시모노세키(下關)와 모지(門司) 사이의 해협인데 두 市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합쳐 만든 것이다. 예전에는 시모노세키(下關) 해협 또는 마간(馬關) 해협이라고도 했다. 周防灘(스오나다)와 響灘(히비키나다)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해협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통행이 쉽지 않다. 그 곳을 나오면 瀨戶內海가 펼쳐진다.

여기서 1617년 日本에 사절로 갔던 朴楅의 노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7월 7일 對馬島에 도착한 박재 일행은 8월 1일 그곳을 떠나 壹岐島에 도착하였다. 8월 3일 아침(7-9시)에 출발한 일행은 같은 날 저녁 현 후쿠오카현 北九州市 響灘(히비키나다)에 속해 있는 藍島(아이노시마)에 이르렀다. 4일에 일행은 關門海峽에 들어섰다. 현 山口縣(아마구치) 下關市에 위치한 赤間關에 이르렀고, 阿彌陀寺에 유숙하였다. 6일에서 9일까지 역풍이 불어 출발을 못하고, 10일에 瀨戶內海를 향해 출발했지만 역풍과 비를 만나 赤間關의 田後浦로 돌아왔다. 關門海峽을 빠져나가 瀨戶內海로 들어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 11일에 그곳에 들어갔다. 순풍이 불어 山口縣 熊毛郡 上關町에 도착하였다. 12일 그곳을 출발하였지만 또 역풍이 불어 노를 저어 廣島縣(히로시마) 吳市(구레) 倉橋島 남쪽의 可留島(가류)에 정박하고 배에서 유숙하였다. 13일 역풍이 불어

39)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2年(643) 6月 辛卯(13日) “筑紫大宰馳驛奏曰。高麗遣使來朝。”

노를 저어 출발하였다. 저녁에 廣島縣 竹原市(다케하라)에 위치한 斷斷牛味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14일 출발하여 현 廣島縣 동부 福山市에 위치한 鞆浦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하여(福山市 앞 白石島를 지나) 저녁에 木路島에 도착하여 배에 유숙하였다. 15일 비가 흐렸지만 순풍이 불어 배를 출발시켰다. 酉時에 현 兵庫縣(효고) たつの市 御津町에 위치한 室津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그곳에서 瀬戸内海에서 가장 큰 淡路島(아와지 섬)이 바라보인다. 16일 아침에 다시 출발하였는데 바람이 없어 작은 배 7척이 줄을 묶어 끌고 갔다. 淡路島 북단을 지나 初更에 비를 무릅쓰고 현 兵庫縣 神戸(고베) 兵庫町에 도착했다. 17일 배가 출발했지만 역풍을 만나 2-3리도 가지 못하고 蓆浦에 정박하였다가 蘆屋村 해변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18일 아침에 출발하여 大板城(오사카 성) 밖에 내렸다.⁴⁰⁾



<그림 4> 瀬戸内海

40) 朴梓著·김성은譯, 앞의 책, 2017, 53~115쪽.

박재 일행은 對馬島에서 24일을 보냈고, 壹岐島에서 오사카까지 18일이 소요되었다. 對馬島에서 순풍을 기다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 여기서 釜山-對馬島-壹岐島에 이르는 항해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순풍이 불면 釜山 → 對馬島는 1일 노정이고, 對馬島 → 壹岐島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부산에서 바람을 기다린 시간이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4일이고, 7월 7일 對馬島에 도착하여 24일이 지난 8월 1일에야 壹岐島로 갈 수 있었다. 釜山 → 對馬島 → 壹岐島 노정에 순풍을 기다린 시간을 합하면 38일이 소요되었던 것이다.⁴¹⁾

金春秋 일행은 瀬戶內海를 가로 질러 難波津에 12월 말에 도착했고, 이듬해 정월 초 어느 날 孝德天皇을 접견하였을 것이다. 『日本書紀』卷 25 大化3年(647) 正月 壬寅(15일) 조에 신라의 遣倭使가 보인다.

“朝庭에서 활을 쏘았다. 그날 高麗와 新羅에서 사신을 보내 調賦를 공헌하였다.”⁴²⁾

여기서 보이는 신라사절단의 단장이 金春秋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조정에서 활을 쏘았다는 것도 신라와 고구려 사절을 위한 행사의 하나일 수도 있다.

V. 改新政權과의 外交

蘇我氏를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한 改新政權은 국내의 지배체제를 새

41) 朴梓著·김성은譯, 앞의 책, 43~53쪽.

42) 『日本書紀』卷25 大化3年(647) 正月 壬寅(15일)“射於朝庭。是日。高麗。新羅並遣使貢獻調賦。”

롭게 개편하면서 외교상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여 신라와의 관계에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였다.⁴³⁾ 金春秋의 渡日 기록이 『일본서기』 647년 是歲 조에 실려 있다.

大化3年(647) 그해 … 新羅가 上臣 大阿滄 金春秋 등을 파견하고, 博士小德 高向黑麻呂와 小山中 中臣連押熊을 보내오고, 孔雀 한쌍과 鸚鵡 한쌍을 來獻했다. 金春秋를 質로 삼았다. 金春秋는 용모(姿顏)가 아름답고 談笑를 잘했다.⁴⁴⁾

金春秋는 수려한 용모를 가졌고, 담소를 잘하였다 한다.⁴⁵⁾ 倭國의 여러 중요 인사들과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말해준다.

먼저 金春秋의 관심은 新政權이 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왜국의 모습이었다. 蘇我氏 세력이 타도된 이후 여왕인 皇極이 孝德天皇에게 양위를 했다. 그런데 실권자가 천황이 아니라 中大兄과 中臣鎌足이었지만 국왕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4년 전 고구려 실권자 淵蓋蘇文을 직접 만난 金春秋에게 이는 중요한 비교 정치의 사례였을 것이다.⁴⁶⁾

물론 어느 것이 국가의 생존에 더 유리하고 효율적이며, 어떠한 장점을 취해야 신라에 최적화 될 수 있는지가 그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金春秋가 孝德天皇·中大兄皇子·內大臣 中臣鎌足 등과 어떤 이야

43) 주보돈, 앞의 책, 94쪽.

44) 『日本書紀』 卷25, 大化3年(647) 是歲 조“…新羅遣上臣大阿滄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 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 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顏善談笑.”

45) 연민수외,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226쪽, 註413.

46) 주보돈, 앞의 책, 104쪽 참조. 한편 이재석은 孝德天皇이 乙巳의 變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다면 中大兄의 어머니 皇極이 퇴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孝德死後 中大兄이 皇極을 齊明天皇으로 복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 했다. 이재석, 『7세기 동아시아 정세에서 본 上宮王家 멸망사건』, 『歷史學報』 228, 2015.

기를 주고받았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서로 전쟁을 해왔던 三國에게 倭國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과거 蘇我氏가 지배하던 倭國은 麗濟의 편이었다. 전쟁 중에 倭가 개입을 하면 힘의 축은 언제나 麗濟로 기울어졌다. 金春秋의 渡日로부터 6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587년 7월 倭國에 정변이 있었다. 蘇我氏가 物部氏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았다. 587-588년과 그 직전에 고구려의 사신이 倭國에 갔고 阿倍比等古臣 등이 고구려에 왔다.⁴⁷⁾ 고구려는 전부터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倭에게 군대를 九州에 집중시킬 것을 요청했다.⁴⁸⁾

591년부터 595년까지 4년 넘게 倭國의 蘇我氏 정권은 九州에 병력 2만을 집중시켰다. 592년 11월 蘇我馬子は 筑紫에 파발을 보내 신라를 견제하는 일(外事)에 충실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했다.⁴⁹⁾

위기를 느낀 신라 진평왕은 수도의 요새화작업에 들어갔다. 591년 남산신성을 축성하고, 593년 명활산성과 서형산성을 쌓았다.⁵⁰⁾ 倭國이 신라의 병력을 남쪽에 묶어 놓자⁵¹⁾ 북쪽에서 고구려군이 남하했다. 『삼국

47) 『續日本記』 권5, 和銅 4年(711) 12月 壬子 조. “壬子,從五位下狛朝臣秋麻呂言,本姓是阿倍也,但當石村池邊宮(용명천황 587-588)御宇聖朝,秋麻呂二世祖比等古臣使高麗國,因即号狛,實非眞姓,請復本姓,許之”

48) 梅原 猛 저, 정성환 편역, 『양제』 『인물로 보는 중국역사』 3, 신원문화사, 1994, 122쪽.

49) 『日本書紀』 卷21, 崇峻天皇 4年(591) 11月 “冬十一月己卯朔壬午. 差紀男麻呂宿禰. 巨勢巨比良夫. 狹臣. 大伴嚙連. 葛城烏奈良臣. 爲大將軍率氏氏臣連爲神將部隊. 領二萬餘軍. 出居筑紫.”

『日本書紀』 卷21, 崇峻天皇 5年(592) 11月 丁未 “遣驛使於筑紫將軍所曰. 依於內亂. 莫意外事.”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3年(595) 七月 “秋七月. 將軍等至自筑紫.”

50)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6, 30~31쪽.

51) 함안성산산성木簡 가운데 壬子年으로 판독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다수의 穀物표찰목간을 고려할 때 592년 신라가 함안에 병력과 물자를 집중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영교, 『阿羅 波斯山 신라 城의 위치와 城山山城 축조시기』, 『한국고대사 탐구』 26, 2017.

사기』는 그 선봉 온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계립현과 죽령 이서의 땅을 되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나아가 신라 군사들과 아 단성 아래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⁵²⁾ 고구려 군대가 단양(阿 旦城)까지 깊숙이 들어와 전투가 벌어졌다.

온달은 철원-춘천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원주부근의 영서지역까지 점령한 후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아 단양 영춘면의 乙阿므를 공격한 것으로 여겨진다. 철원-춘천-홍천-원주-제천-단양으로 이어지는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일치되는 루터이다. 남쪽에서 왜의 견제로 강원도 영서지역에 신라가 병력을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⁵³⁾

600년 이후 신라와 백제가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601년 3월 倭國은 大伴連嚙을 고구려에, 坂本臣糠手를 백제에 파견하여 신라를 협격하자고 제안했다.⁵⁴⁾

602년 2월에 聖德太子의 동생 來目皇子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군사 2만 5천 명을 맡겼다. 4월 來目皇子는 군대를 이끌고 九州 筑紫에 도착하여 선박을 모우고 군량을 날랐다. 6월 고구려에 갔던 大伴連嚙이 백제로 가서 坂本臣糠手와 합류하여 함께 倭國으로 귀국했다. 고구려와 백제에게 사정을 물어보고 신라 협공 기일을 정한 사절들은 결과를 蘇我氏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52) 『삼국사기』 온달전을 보면 “양강왕(영양왕)이 (590년) 즉위하자 온달이 상주하였다 (及陽岡王即位, 溫達奏曰)”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급(及)’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3) 고구려의 아단성공격과 왜의 九州 병력집중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소개되어 있다. 서영교,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軍史』 81, 2011.

54)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9年(601) 3月 丙 “遣大伴連嚙于高麗. 遣坂本臣糠手于百濟. 以詔之曰. 急救任那.”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6月 己酉 丙 “大伴連嚙, 坂本臣糠手, 共至自百濟.”

55)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2月 “來目皇子爲擊新羅將軍. 授諸神部及國造. 伴造等. 并軍衆二萬五千人”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4月 “將軍來目皇子到于筑紫. 乃進屯鳴郡. 而

602년 신라 진평왕은 왜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마산 진동만의 배후인 함안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筑紫에 주둔한 倭軍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라에 대한 침공이 지연되고 있었다.⁵⁶⁾ 8월 武王이 백제군 선봉대를 보내 지리산 운봉고원의 아막성을 포위했다. 그러자 신라 진평왕이 구원군을 그곳으로 보내 백제군을 격퇴하였다. 신라군은 아막성 주변에 4개성을 쌓고 백제 영토로 진격을 하는 도박을 했다. 왜군의 침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백제를 각개 격파할 수 있는 타이밍마저 놓치게 된다. 최악의 경우 고구려까지 가세하면 3개의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었다. 신라군과 백제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신라가 백제군 4만을 전멸시켰다.⁵⁷⁾

『삼국사기』 귀산전을 보면 아막성 전투에서 부상당한 귀산을 진평왕이 阿那(함안)의 들에서 맞이했다고 한다.⁵⁸⁾ 함안 주둔 병력을 지리산 아막성으로 투입하여 백제군을 궤멸시킨 진평왕이 병력을 원위치 시키

聚船舶運軍糧.”

56)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6月 丁未 朔己酉 조.

57) 『삼국사기』 권27 무왕 3년 8월 조. “三年, 秋八月, 王出兵, 圍新羅阿莫山城一名<母山城>. 羅王眞平遣精騎數千, 拒戰之, 我兵失利而還. 新羅築小陘·畏石·泉山·甕峯四城, 侵逼我疆境. 王怒, 令佐平解讎,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重乾品·武殷, 帥衆拒戰, 解讎不利, 引軍退於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 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子貴山大言曰 “吾嘗受教於師, 曰 ‘士當軍, 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教乎?” 以馬授父, 卽與小將箒項, 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讎僅免, 單馬以歸.”

58) 『삼국사기』 권45, 귀산전은 602년 8월 아막성에서 전투를 치른 신라군의 이동로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귀산이 “내 일찌기 스승에게 들으니 군사는 적군을 만나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찌 감히 패하여 달아날 수 있으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적을 쳐서 수십 명을 죽인 다음 자기 말에 아버지를 태워 보내고, 추함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웠다. 여러 군사들이 이를 보고 분발하여 진격하니,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메우고 말 한 필, 수레 한 채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귀산 등은 온몸이 창칼에 찢려 돌아오는 도중에 죽었다. 왕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阿那之野에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왕은 그들의 시체 앞으로 나아가 통곡하고, 예를 갖추어 장사지냈으며, 귀산에게는 奈麻를, 추함에게는 大舍를 각각 추증하였다.

면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

602년 8월 아막성 전투가 종료된 이후에도 왜군은 아직 큐슈에 주둔해 있는 상태였다. 신라는 그곳에서 전투를 치른 대부분의 병력들을 곧장 함안방면으로 복귀 시킬 필요가 있었다. 남원 운봉 아막성에서 함양-산청-의령·진주를 거쳐 함안으로 향하는 행렬 속에 귀산과 추항이 있었다. 그들은 부상을 당해 함안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 함안의 들판(阿那之野)에서 시신을 맞이한 진평왕은 통곡을 했다.

603년 봄 2월 병을 앓던 倭將 來目皇子가 筑紫에서 죽었다.⁵⁹⁾ 8월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했다.⁶⁰⁾ 신라 진평왕이 직접 병력 1만을 차출해 북한산성을 구원했다.⁶¹⁾ 고구려는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

602년 고구려·백제·倭 3국이 신라에 대한 同時挾擊을 합의 했지만, 그들은 한꺼번에 飛上하지 못했다. 최초제안자였던 倭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고구려는 1년이나 지각을 했다. 정작 약속을 준수한 백제는 재앙적인 패배를 당해 4만을 잃었다.⁶²⁾

백제는 여기에 대한 보복을 했다. 9년이 지나 아이들이 자라 병사가 될 무렵인 611년 백제가 현재 전북 무주에 위치한 신라의 가잠성을 함락시켰고, 616년 운봉의 아막성을 다시 공격했다. 618년 신라가 가잠성을 탈환했다. 이후에도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

59)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1年(603) 2月 丙子. “十一年春二月癸酉朔丙子. 來目皇子薨於筑紫. 仍驛使以奏上. 爰天皇聞之大驚. 則召皇太子. 蘇我大臣. 謂之曰. 征新羅大將軍來目皇子薨. 其臨大事而不遂矣. 甚悲乎.”

60) 603년 8월 고구려의 신라침공은 1년 지체된 작전으로 보인다. 여호규는 602년 고구려가 돌궐 문제에 신경을 써야했다고 한다. 여호규,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30쪽.

61) 『삼국사기』 권4, 진평왕 25년(603) 조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62) 이상 602년 아막성 전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서영교, 『阿莫城 戰鬪와 倭』, 『歷史學報』 216, 2012.

되었다.

623년 전선이 교착되자 백제가 倭國에 도움을 요청했다. 倭 조정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蘇我馬子の 동생 蘇我境部臣의 강력한 주장으로 신라를 쳤다. 『日本書紀』를 보면 境部臣이 신라에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 목적을 달성한 그는 군대를 이끌고 물러났다. 하지만 재침에 대한 신라의 우려가 높아졌고, 남해안에 병력이 다수 묶이게 되었고, 羅濟 양국 힘의 균형이 깨졌다.

624년 백제가 소백산맥을 돌파하여 함양으로 들어가 속함성 등 6개성을 함락시켰다. 이후 백제는 남강유역을 잠식해 들어갔으며, 산청·진주와 南海島까지 손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642년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서부전선 총사령부인 합천 大耶城과 주변 30개성을 함락 시켜 낙동강 西岸 가야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다.⁶³⁾ 백제군이 낙동강을 건너 東岸인 대구 達句伐을 돌파하면 신라의 왕경이 지척이다.

金春秋가 倭國을 방문했을 당시에 신라는 백제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과거처럼 倭가 다시 백제의 편에 서서 군사적 개입을 한다면, 신라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었다.

倭國이 초대하여 기회를 줄 때 金春秋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다. 적어도 과거의 사태가 재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倭國의 新政權이 원하는 점을 파악하고 적지 않은 약속을 해야 했을 것이다.

주보돈의 지적대로 金春秋가 倭國이 반신라적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였다.⁶⁴⁾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倭國의 침공이나 개입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김춘추의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63) 서영교, 「百濟의 남강유역 再진출과 倭」 『서강인문논총』 46, 2016, 169쪽.

64) 주보돈, 『金春秋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103쪽.

VI. 맺음말

645년 倭國에서 乙巳의 變이 일어났다. 中大兄皇子 등이 蘇我暹夷와 蘇我入鹿 父子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다.

정변에 성공한 中大兄皇子는 실권을 장악하고 孝德天皇 중심으로 정치를 개혁하는 大化改新을 단행하였다. 중앙집권적 정치기구를 구축하여, 토지와 인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고자 했다.

646년 2월 三國의 사신이 倭國에 도착했고, 변화를 알게 되었다. 신라 사신이 倭國에 모종의 부탁을 했고, 8개월 후 답변이 왔다. 高向黑麻呂를 신라에 파견하여 비중 있는 인물을 倭國에 보내달라고 했다.

646년 10월 초 金春秋는 倭國으로 출발했던 것 같다. 王京을 떠난 金春秋 일행은 울산단층을 따라 毛火까지 내려가다가 동래단층에 들어섰다. 울산(屈井縣)을 지나 동래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온천을 했다. 휴식 후 부산 영도 방면으로 갔다. 對馬島로 가는 신라 배가 그곳에 정박하고 있었다.

바람을 기다리다가 왕실목장이 위치한 絶影島 태종대에 들러 활을 쏘았다. 순풍이 불자 倭國의 遣新羅使와 함께 승선하여 對馬島 북단으로 향했다.

배가 對馬島의 북단 鰐浦(宛尼浦)에 가까이 가자 그곳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마중을 나와 신라 배를 포구로 끌고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金春秋는 그곳에서 對馬島 남쪽으로 이동하여 기다리다가 순풍이 불자 壹岐島로 향했다.

여기서 순풍이라는 것은 북풍이 아니고 남풍이 조금 서쪽으로 부는 것이다. 斜風(비껴 부는 바람)으로, 돛을 비스듬하게 하여 항해하는 것이다. 壹岐島에 도착한 일행은 하루정도 휴식을 가졌으리라. 이제 항로는 비교적 순조로울 터였다. 다음날 쿠루시오 해류를 타고 筑紫에 도

착했다. 倭國 관리들이 과발을 難波로 보내 입국을 알렸을 것이다. 金春秋 일행은 다시 승선하여 關門해협의 下關에서 잠시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순풍이 불자 해협을 빠져나가 瀬戶內海로 접어들어 難波로 향했다.

수많은 섬들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고, 양쪽으로 육지가 보인다. 그곳을 지나간 조선시대의 한 여행자는 섬들이 너무 많아 다 기억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섬들이 서로 막아서고 물길이 두 가닥으로 나뉘기도 하고, 山岐 바다굽이가 사방으로 빙 둘러 앉아 혹 넓기도 하고, 혹 좁기도 하면서 긴 포가 되었고, 배가 포구 안에 들어가면 통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배가 점점 가까이 가면 굽이굽이 포구가 되어 사통오달하였다고 한다.

難波에 내린 金春秋 일행은 孝德天皇을 알현한 후 太子 中大兄·內大臣 中臣鎌足과 외교적 문제를 논의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야기는 과거 蘇我氏가 한반도 三國의 전쟁에 개입하여 힘의 균형을 깨던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587년 倭國의 실권을 장악한 蘇我氏는 고구려와 밀착했다. 사신이 오고갔고, 591-595년 倭國은 九州에 2만의 병력을 집중시켜 신라를 견제했다. 신라의 병력이 남쪽해안에 묶이자 고구려 장군 溫達이 충북 단양까지 진격하여 와서 阿旦城을 공격하였다.

601년 蘇我氏는 고구려와 백제에 사신을 보내 신라를 포위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 고구려·백제·왜 3국이 같은 시점에 신라를 침공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602년 왜군 2만 5천이 九州에 진을 치고 바다를 건너가 신라를 칠 태세를 갖추었고, 백제가 병력 4만을 남원에 주둔시키고 일부 병력을 운봉고원으로 보내 아막성을 포위했다. 하지만 왜군의 장군인 來目皇子가 병이 들어 신라로의 출병이 연기되었다. 왜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함안에 주둔중인 신라군 일부가 그 틈을 이용하여 아막성을

구원하러 출동했다. 백제군이 물러나고 아막성 포위는 풀렸다. 신라는 아막성 주위에 4개의 성을 증축하고 백제를 향해 진군했다. 신라는 자국을 포위하고 있는 세력 가운데 하나를 먼저 각개 격파해야 했다. 신라와 백제의 大會戰이 있었고, 백제군 4만이 전멸했다.

603년 8월에 가서야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하지만九州에 주둔한 왜군이 직전에 철수한 상태였다. 진평왕이 몸소 1만을 이끌고 가서 구원했다. 정작 신라협격계획을 제안한 倭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고구려는 1년 동안 늑장을 부렸다. 약속을 정확히 준수한 백제만이 신라에 패배하여 4만의 병력을 상실하는 재앙을 맞았다.

그로부터 9년 지나 아이들이 병사가 되자 백제는 다시 반격했다. 611년 백제는 무주에 위치한 신라의 가잠성을 함락시켰고, 616년 아막성을 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618년 신라가 가잠성을 탈환했다.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羅濟 양국은 장기전을 펼쳤다. 623년 백제가 蘇我氏에게 신라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해 蘇我馬子の 동생 蘇我境部臣이 주도하여 신라를 공격했다. 뇌물을 받고 그들은 물러났지만 재침의 우려가 있어 신라군의 상당한 전력이 남해안 수비에 묶였고, 對백제전에 전력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624년 백제군이 지리산 운봉고개를 돌파하여 함양(速含城)으로 들어왔고, 이후 산청-진주-함안·의령을 차례로 점령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642년 백제 의자왕은 합천 대야성과 그 주변 30城을 함락시키고, 낙동강 西岸을 대부분 차지했다.

反신라적인 蘇我氏를 제거하고 들어선 大化改新 정권에 金春秋가 직접 다가갔다는 것은 양국의 관계를 재설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다. 倭國이 다시 麗濟의 편에 선다면 신라의 미래가 없었다.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金春秋가 改新政權의 요구를 수용해

야 했을 것이다. 이후 倭國은 660년 백제 멸망 이전까지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志』 『日本書紀』 『續日本記』 『續日本後紀』 『藤氏家傳』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萊府誌』 『南遷日錄』 『東槎日記』 『扶桑錄』

2. 저서 및 논문

주보돈, 『金春秋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서영교,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軍史』 81, 2011.

_____, 「阿莫城 戰鬥와 倭」, 『歷史學報』 216, 2012.

_____, 「新羅 倭國 사이 境界人」, 『港都釜山』 34, 2018.

_____, 「百濟의 남강유역 再진출과 倭」, 『서강인문논총』 46, 2016

_____, 「阿羅 波斯山 신라 城의 위치와 城山山城 축조시기」, 『한국고대사탐구』 26, 2017.

연민수외,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이재석, 「7세기 동아시아 정세에서 본 上宮王家 멸망사건」, 『歷史學報』 228, 2015.

梅原 猛 저·정성환 편역, 「양제」, 『인물로 보는 중국역사』 3, 신원문화사, 1994.

加藤謙吉, 『蘇我氏と大和王權』, 吉川弘文館, 1983.

門脇禎二, 「蘇我氏の出自について」,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2号, 1971.

_____, 『大化改新史論』 上, 思文閣出版, 1991.

山尾幸久, 『日本國家の形成』, 岩波新書, 1977.

_____,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森平雅彦, 「近世朝鮮通信使船の對馬海峽航路」, 『史淵』 155, 2018.

城田吉六, 『對馬万葉の旅: 鉦海の水門に宿る』, 葦書房, 1985.

遠山美都男, 『蘇我氏四代臣, 罪を知らず』, ミネルヴァ書房(ミネルヴァ日本評伝選), 2006.

水谷千秋, 『謎の豪族 蘇我氏』, 文藝春秋(文春新書), 2006.

_____, 『蘇我氏-中央における熾烈な権力争いに挑み続けた一族』『歴史讀本』
2011 8月号.

鈴木靖民, 『木滿致と蘇我氏』,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51号, 1981.

坂本義種, 『木滿致と木苧滿致と蘇我滿智』, 『韓』 116号, 1989.

투고일 : 2018. 11. 12. 심사완료일 : 2018. 12. 06. 게재 확정일 : 2018. 12. 14.
--

| Abstract |

Kim Chun-chu's Journey to Japan and Diplomacy

Seo, Young-Kyo

There was a coup in 645. Japanese Prince Naganoue took power after removing Soga Family. Naganoue stood Emperor Kodoku-tenno and became a crown prince himself. He took over the power. In February of 646, Silla learned of the Japanese revolution. In early October of 646, Kim Chun-chu started for Japan.

He heading for Tsusima-Ikisima-Fukuoka-Osaka. land is visible from both sides Honsu and Sikoku in Setonaikai. Kim Chun-chu landed in Osaka. On the road, many people looked at the Silla Man. Kim Chun-chu had a ceremonial talk Kodoku-tenno in Naniwa Palace. The substantive diplomatic negotiations were with the Crown Prince Naganoue. Kim Chun-chu had a diplomatic task to solve. In the past, Japan attacked Silla and made it difficult.

After 550 years, King Jinheung of Silla made a military expansion. Koguryeo and Baekje lost a lot of territory and approached Japan for their revenge. The war of three countries is always went to take place. Japanese Power Man Sogano Umako sided with Baekje and Goguryeo. Silla, surrounded by three kingdoms, was dangerous. In 624, Baekje broke through the Sobaek Mountains. In 642, Baekje occupied every part of the western Nakdonggang River. When Baekje troops crossed the river, the capital of Silla was in danger. Even when Kim Chun-chu negotiated with Japan's new regime, the war against Baekje continued.

Kim Chun-chu ask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frain from invading

Silla in the future. Until 660, Japan did not engage in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 Kim Chun-Choo, Prince Nakano-Ue, Nakatomi-Kamatari, Dong-rae Spa, Tai-Jong-Dea, Tsusima